

텐트 활용 및 직접 취사 활동

1 활동 개요



□ 활동 소개

- 텐트 활용 활동 : 텐트 등 임시 주거지에서 숙박하는 활동
- 직접 취사 활동 : 청소년이 야외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직접 취사하는 활동

주요 사고유형 및 사례

-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, 가스 등을 활용한 난방으로 화재 발생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
- 야영수련활동을 하던 초등학생이 가스버너로 조리하던 도중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
- 조리용 도구(칼, 가위 등) 사용 미숙으로 인한 베임 또는 찔과상 발생
- 텐트 고정용 로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
- 텐트 설치 시 폴대에 의한 찔림
- 텐트 설치 시 텐트 고정을 위해 팍을 박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
- 야영장 주변 환경 정비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(발빠짐, 넘어짐 등)
- 뱀, 벌, 모기 등의 유해 독충 물림 또는 유해 식물 접촉에 의한 사고
- 전기누전, 난로사용 등 텐트 화재
- 가스버너 과열(과대불판) 및 결합부위 가스누출사고

□ 활동 장비 소개

			
<p>천막(텐트)</p>	<p>침낭(담요 등)</p>	<p>매트리스</p>	<p>온열기기 (전기난로, 온풍기, 온열매트 등)</p>
			
<p>캠핑용 버너 (화로, 그릴 등)</p>	<p>조리도구(코펠 등)</p>	<p>조명기구(랜턴 등)</p>	<p>(방염, 방열)장갑</p>

2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

확인자	책임자

점검일 :

□ 활동 장소 점검

항목	확인내용	적합	주의	부적합	해당 없음
노지	침수, 유실, 고립, 벌집, 낙석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				
	낙석 및 붕괴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				
	우천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, 유실, 고립, 산사태 위험이 없는지 확인				
	비상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				
	화재를 대비한 소화기 소지 및 이상여부 확인				
	진입로는 구급차,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,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				
	기타 야영지 주변 독충(말벌, 지네) 및 야생동물(뱀, 멧돼지) 등 참여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				
야영장	적법한 시설(장소)인지 등록(허가)증 확인				
	시설배치도, 이용방법, 비상시 행동요령 등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				
	텐트(천막)를 칠 수 있는 공간은 1개당 3m ²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				
	야영장 규모 고려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하고 있는지 확인				
	(천막2개소 또는 100m ² 마다 소화기 1개 이상)				
	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,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,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				
	긴급상황 대비 대피소와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				
	안전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, 구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				
	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				
취사장, 화장실 등 사용시설이 정기적으로 (위생)점검 및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					

□ 활동 장비 점검

항목	확인내용	적합	주의	부적합	해당 없음
텐트 (천막)	텐트의 크기가 참여인원에 적합지 확인				
	텐트 구성품(팩, 망치, 고정줄 등) 수량 점검				
	텐트의 방염, 방수 기능 확보 확인				
	박음질, 찢김 등 상태 확인				
	텐트의 오염도 및 청결상태 확인				
캠핑용 버너	KC인증마크 및 필증번호 확인				
	작동방법 설명서 및 점화, 연료누출 등 기능 상태 확인				
	화로, 그릴 사용 시 지지대 등 고정상태 확인				
침낭	활동 계절(온도) 적합한지 확인				
	박음질, 찢김 등 상태 확인				
	침낭의 오염도 및 청결상태 확인				
매트리스	박음질, 찢김 등 상태 확인				
	매트리스의 오염도 및 청결상태 확인				
조리도구 (코펠 등)	버너 화구보다 큰 과대불판 사용 금지 확인				
	조리도구(코펠 등) 구성품 점검				
	일반상태 및 청결상태 확인				
조명기구 (랜턴)	일반상태 및 기능 확인				
	배터리, 연료, 충전상태 확인				
온열기기	파손여부 및 청결상태 확인				
	600W미만 사용 확인				
	안전기준, 작동방법 설명서 및 기능상태 확인				
(방염, 방열) 장갑	장갑의 방염, 방열 기능 확보 확인				
	박음질, 찢김 등 상태 확인				
	장갑의 오염도 및 청결상태 확인				

□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안전 확인내용

-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공통 안전수칙

안전수칙 내용	
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가스버너(가스난로, 온수매트) 사용 금지로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, 부득이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 확보하기	
취사 시 과대불판 사용 금지하고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를 사용하며 가스는 화기에서 멀리 두기	
전기용품 사용 시 총 600W 미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	
취침 시에는 난로, 전등 같은 가스용품 끄기	
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밖에 보관하기	
텐트 고정 줄에 안전 가드너(식별기) 설치하기	
식중독 예방을 위해 완전히 익혀먹고 상하지 않도록 아이스박스 등 음식물 관리 잘하기	
자연 및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생활하기	
화기 사용 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기	
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생활하기	

- 지도자 대상

구분	확인내용	진행
활동 전	야영기간 날씨 온도 등의 기상생태 일기예보 확인	□
	야영장 활동장소 및 활동장비 사전점검	
	위험지역에 대한 안내문구 및 안내표지판, 경계선 확인	
	참가자 건강상태(질병, 알러지, 약 복용 등) 및 비상연락망 확인	
	지도자 전문성 수준 및 자격요건 배치 인원 적절성 확인	
	취사계획에 따른 음식물 보관 및 화기 안전관리 교육	
	비상 및 긴급상황 대비 안전관리체계, 비상연락망, 대피로 등 교육	
	공동(텐트, 취사도구) 및 개인별(의류, 침낭, 간식 등) 준비물 구비 확인	
활동 중	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버너, 난로, 온수매트 사용 금지 확인	□
	취사 시 안전관리(과대불판 사용 금지) 확인	
	음식물 보관 및 관리 확인	
	취침 시 난로 전등 등 가스용품 끄기 확인	
	전기용품 사용 시 총 600W 미만 사용 확인	
	텐트 고정 줄에 안전 가드너(식별기) 설치 확인	
활동 후	참가 청소년 건강상태 확인	□
	활동장비 정비 및 확인	
	활동장 주변 정리상태(분리수거 등) 확인	

- 청소년 대상

구분	확인내용	진행
활동 전	안전교육 실시 - 안전수칙(일산화탄소 중독, 식중독, 과대불판, 전기 등) 교육 - 야영기간 기상상태 일기예보 안내 - 비상 및 긴급상황 대비 안전관리체계, 비상연락망, 대피로 등 교육 - 취사계획에 따른 음식물 보관 및 화기 안전관리 교육 - 공동(텐트, 취사도구) 및 개인별(의류, 침낭, 간식 등) 준비물 구비 확인	□
	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버너, 난로, 온수매트 사용 금지 확인 취사 시 안전관리(과대불판 사용 금지) 확인 음식물 보관 및 관리 확인 취침 시 가스난로, 촛불, 모기향 등 화기사용 금지 전기용품 사용 시 총 600W 미만 사용 확인 텐트 고정 줄에 안전 가드너(식별기) 설치 확인 위험지역 출입금지	
활동 중	건강상태 확인 활동장비 정비 및 확인 활동장 주변 정리상태(분리수거 등) 확인	□
활동 후		

활동 중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

□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 예방지침

환기	- 텐트 안에서는 화로, 난로, 휴대용 가스버너 등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 -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가 어려우므로 연소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장비 사용 시 주의점	- 연소 장비는 야외에서만 사용해야 하며, 바람이 강하거나 습한 날씨에는 연소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. - 사용 후에는 연소 기구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텐트에 들이지 않아야 한다.
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	- 캠핑을 자주 한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해야 한다. - 경보기는 텐트 내부에 설치하고 배터리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.
숯이나 연탄 관리	- 숯이나 연탄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야 한다. - 연소 중인 숯은 텐트 주변에 두지 않아야 한다.

□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 대응방안

중독 의심 시 대처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면 텐트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. - 환자를 환기가 잘 되는 야외로 이동시켜야 한다.
환자 상태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독 증상(두통, 어지럼증, 메스꺼움, 의식 저하 등)을 확인해야 한다. -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호흡이 느려지면 즉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응급처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,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. -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(CPR)을 실시해야 한다.
119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. -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.
다른 청소년들의 안전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중독 가능성이 있으므로, 모두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.
의료 기관 방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상이 사라져도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. 일산화탄소 중독은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.
재발 방지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야영하지 않아야 한다. - 이후 야영할 때는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.

□ 야생동물 피해 예방지침

멧돼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는 지역 출입 시 주의한다. - 음식물 쓰레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멧돼지 접근을 방지한다. - 야생동물 경고 표지판 설치 및 주민 교육을 강화한다.
고라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라니가 자주 출몰하는 도로 주변에서는 서행 운전하도록 한다. -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밝기를 조절해 고라니의 시력 혼란을 최소화한다.
야생 진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풀이 무성한 곳을 피한다. - 긴 옷 착용 및 피부 노출을 최소화한다. - 기피제를 사용한다. - 풀밭에 용변을 보거나 걸옷을 벗지 않도록 한다. - 돛자리 등 방석 사용을 권장한다. - 야외 활동 후 세탁, 샤워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.
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벌집 발견 시 건드리지 말고 안전하게 신고한다. - 벌 출몰 지역에서는 빠르게 조용히 벗어난다.
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뱀이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신속한 이동과 주의를 살핀다. - 야외 활동 시 긴 바지, 장화 착용하도록 권장한다.
해파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파리 출몰 시기 해변 출입 통제 및 안전 구역을 지정한다. - 해파리 주의 표지판 설치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. - 해변에서 긴 소매 옷이나 보호 수영복 착용을 권장한다.

□ 야생동물 피해 관련 대응방안

<p>멧돼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멧돼지를 향해 소리 지르거나 등을 보이지 않는다. -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며 뒷걸음질로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긴다. - 신속히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가방 등으로 몸을 보호한다. - 119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.
<p>고라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급정거 및 급격한 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. - 고라니의 시력장애와 흥분을 일으키는 전조등을 끈다. -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한 뒤 도로공사에 신고한다. (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 / 사고지역 콜센터 지역번호+120)
<p>야생 진드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로 씻고 항생제를 바른다. - 물린 부위는 절대로 긁지 않도록 한다. - 가려움, 복통, 설사, 구토 등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.
<p>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벌이 있는 곳에서는 뛰지 말고 빠르게 조용히 벗어난다. - 말벌에게 살충제 뿌리지 않는다. - 벌집 발견 시 건드리지 말고 소방서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제거한다.
<p>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뱀이 다시 공격할 수 있으니 사고 지점에서 신속히 벗어난다. -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119에 신고한다. - 깨끗한 물로 독과 이물질을 씻어내고, 심장보다 낮게 물린 부위 위치하도록 한다. - 독 확산 방지를 위해 물린 부위 위쪽 10~15cm 떨어진 곳을 느슨하게 묶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.
<p>해파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해당 부위를 바닷물로 씻는다. (수돗물이나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음). - 촉수가 피부에 붙어있다면 신용카드 또는 조개껍데기 등으로 촉수가 박힌 반대 방향으로 긁어낸다. - 심한 통증, 알레르기 반응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한다.